

橫城

金石文大觀

이인재 엮음

 橫城文化院

발간사



황성문화원장 이일영

우리 황성군에는 선사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문화유산들은 세월의 풍파와 싸우면서 점차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특히 금석(金石)에 새겨진 문자들은 모두 생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우리 황성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물에 대해 알려주고 증명해 줄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귀중한 금석문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황성문화원에서는 금석문 보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1년여의 기간 동안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식, 신도비, 묘비, 선정비 중 일부나마 탁본하고 역주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성과물이 군민들에게는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또한 황성군의 역사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황성 금석문대관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조창호 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책이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연세대학교 이인재 교수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 7월

축간사



황성군수 조태진

『황성 금석문대관』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성은 일제시대 구국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애국의 고장이자, 한국 천주교의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계승시키는 일은 21세기 첨단사회를 살아가는 데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의 노력 끝에 황성문화원을 기축으로 하여 우리 고장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 신도비, 묘비, 선정비, 기념비 등 금석문을 역주, 탁본, 연구하여 집대성하고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기에 『황성 금석문대관』은 단순한 글자라기보다는 황성군의 역사문화인물 등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귀중한 자료로서 후손들에게 매우 역량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일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5만 황성군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황성군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기록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군민들에게는 지역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황성 금석문대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축간사



황성군의회의장 조창호

애국의 고장 황성의 역사를 이해시켜 주고 또 하나의 역사서가 될 『황성 금석문대관』이 발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울러 그동안 묻혀져 가는 우리 고장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발간하기까지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일영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복원 전승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황성에 산재해 있는 지식, 신도비, 묘비, 선정비, 기념비 등 80여 기에 대하여 발굴과 연구 끝에 내놓게 된 황성 금석문대관은 황성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정비한 것으로,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그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군민들에게 널리 읽혀 우리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배워 우리 생활 속에 미풍양속으로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며, 더 나아가 향토문화 창출로 지역문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황성 금석문대관』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간행사

금석문이란, 금속(金屬)이나 석제(石製)에 새겨둔 글, 즉 새김글을 말한다. 종이에 쓰지 않고 금석(金石)에 글을 새기는 이유에 대해서 옛 사람들은 해당 인물의 위대한 행적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신들만의 짧은 만남을 금석(金石)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기억시키는 전통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승하고 있다.

금석문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일은, 글을 쓰고 금석(金石)에 담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글을 읽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석(金石)에 글을 쓰거나 새긴 사람들은 추모(追慕)의 정(情)이 앞서겠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은 역사적 분석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금석문 연구의 매력이다.

횡성 지역에는 많은 금석문이 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 금석(金石)에 새겼지만, 세월은 사람들의 염원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돌과 쇠가 닳고 부서짐에 따라 글자도 깨지고 안 보이게 되는 것도 다반사이고, 필요에 따라 없애기도 하여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기도 한다. 2003년 2월 횡성문화원의 제안으로 편자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은 현 시점에서나마 그 역사를 보존해 두고 싶다는 두 바람이 합치했기 때문이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에 걸쳐 진행된 이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의 1차 작업이었다. 이 가운데 자료의 위치 확인, 기초 자료 조사, 사진 촬영은 연세대학교 총무처 최기택 선생님(촬영)과 횡성문화원 홍성진 사무국장님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문제는 채탁(採拓)이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역사문화학과는 1990년에 첫 학부 입학생을 받아 10여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원생 수도 소수이고, 채탁(採拓) 경험이 있는 원생(院生)도 적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훈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진우 군의 지휘로 이준성, 채관식 군이 4개월 동안 3백 회 이상의 연습 기회를 가졌다.

두 번째 단계는 2003년 8월부터 10월에 걸친 2차 채탁(採拓) 작업이었다. 주말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 했지만, 2003년 8월과 9월 주말에는 거의 매번 비가 내렸다. 할수없이 주중이라도 가능한 날을 동원하여 채탁(採拓)을 하였는데, 2학기 수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성실히 작업을 진행시켜 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사학과 원생과 역사문화학과 학부생들이 고맙다.

세 번째 단계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진행된 판독과 원문입력, 교열 및 역주 작업이었다. 그동안 편자는 나팔여초 불교금석문과 운곡시사 역주를 한 경험은 있지만, 조선시대, 한말일제하, 해방 이후 금석문 역주를 해 본 일은 없었다. 특히 이 시기는 고대사와 중세사 자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하여, 역사학계에서는 이 시기 신도비나 묘비명의 자료적 가치를 낮게 평가해 왔으나, 실제 역주를 하다 보니 일반 문헌자료와는 다른 자료 분석의 재미를 맛볼 수 있었다.

한편 횡성문화원의 정기총회 기간이었던 2004년 2월 18일부터 닷새 동안에는 횡성문화원 1층 전시장에서 ‘횡성금석문

탁본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작업한 성과물을 황성군민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최근 강원도 지역사 연구에 영서와 영동 지역 거점 대학들이 많이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사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전개 과정의 분석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서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아래에 부기하는 관련 인사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해안출판사 오일주 사장님과 김현숙 편집장님의 노력, 그리고 황성문화원 이일영 원장님과 황성군 조태진 군수님, 황성군의회 조창호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황성 지역학의 풍부한 사료 발굴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는 모두 편자의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7월 12일

매지호수가 보이는 연세대학교 청송관 연구실에서

이인재 씀

범 례

하나, 본 금석문대관은 황성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지석(誌石)·묘비(墓碑)·불망비(不忘碑)·기념비(紀念碑)·송덕비(頌德碑)·선정비(善政碑)·국난극복기념비·암핵 등 총 70여 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나, 수록 범위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단 국난극복기념비는 예외로 하였다. 또한 1945년 이전에 건립되었으나 이후 중진한 것도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나, 비의 마멸이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부분은 □로 표기하였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은 각주(脚註)를 병기하였다.

하나, 배열 방식은 비의 건립연대를 알 수 없는 비석이 많은 관계로 비의 건립연대에 따르지 않고, 인물의 출생연대와 사망연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출생사망 연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과 본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추정치로 대신하였다.

하나, 편집방법은 비의 소개글과 약도를 제시하고 비석사진과 탁본사진을 넣은 후 원문·역주문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채탁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탁본 사진을 제외하였다.

하나, 비의 규격 표시는 각각의 총높이, 비높이, 폭, 두께로 하였으며, 개석이 없는 경우에는 총높이를 제외하였다.

하나, 문장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 안에 한자(漢字)를 병기하였다.

차 례

발 간 사 이일영	3
축 간 사 조태진	4
축 간 사 조창호	5
간 행 사 이인재	6

제1절 지식 · 13

1_ 조충(趙冲) 지식(誌石)	15
------------------	----

제2절 신도비 · 29

1_ 이반계(李攀桂) 신도비(神道碑)	31
2_ 정종영(鄭宗榮) 신도비(神道碑)	44

제3절 묘비 · 71

1_ 조충(趙冲) 묘비(墓碑)	73
2_ 고흥산(高荊山) 묘비(墓碑)	79
3_ 고향산(高恒山) 묘비(墓碑)	88
4_ 원황(元滉) 묘비(墓碑)	93
5_ 조금(趙嶽) 묘비(墓碑)	100
6_ 정종영(鄭宗榮) 묘비(墓碑)	105
7_ 정석연(鄭錫衍) 묘비(墓碑)	111

- 8_ 정수명(鄭洙明) 묘비(墓碑) 115
- 9_ 김종남(金鍾男) 묘비(墓碑) 119
- 10_ 박혜동(朴惠東) 묘비(墓碑) 124
- 11_ 박원충(朴元忠) 묘비(墓碑) 131
- 12_ 원준영(元俊英) 묘비(墓碑) 137
- 13_ 안석경(安錫儻) 묘비(墓碑) 142
- 14_ 장동식(張東植) 묘비(墓碑) 152
- 15_ 장항환(張恒煥) 묘비(墓碑) 160
- 16_ 이석해(李錫海) 묘비(墓碑) 167
- 17_ 이산립(李山立) 묘비(墓碑) 171
- 18_ 창녕 조씨(昌寧曹氏) 묘비(墓碑) 176
- 19_ 제용감부정(濟用監副正) 조공(趙公) 묘비(墓碑) 180
- 20_ 최양옥(崔養玉) 묘비(墓碑) 190
- 21_ 강성순(姜聲順) 묘비(墓碑) 196

제4절 불망비·기념비·송덕비·선정비 · 203

불망비 |

- 1_ 사선생비(四先生碑) 205
- 2_ 구일(具鎰) 불망비(不忘碑) 211
- 3_ 이형좌(李衡佐) 불망비(不忘碑) 217
- 4_ 김일좌(金日佐) 불망비(不忘碑) 221
- 5_ 정우주(鄭宇柱) 불망비(不忘碑) 225
- 6_ □진환(□鎭還) 불망비(不忘碑) 229
- 7_ 박주헌(朴周憲) 불망비(不忘碑) 233
- 8_ 윤흥훈(尹興勳) 불망비(不忘碑) 241
- 9_ 신현필(申鉉弼) 불망비(不忘碑) 246

- 10_ 안국선(安國善) 불망비(不忘碑) 250
- 11_ 석명선(石明瑄) 불망비(不忘碑) 255
- 12_ 원종우(元鍾禹) 불망비(不忘碑) 260
- 13_ 이범룡(李範龍) 불망비(不忘碑) 265

기념비 |

- 1_ 원용균(元容均) 기념비(紀念碑) 270
- 2_ 조창렬(趙昌烈) 기념비(紀念碑) 274
- 3_ 민지혁(閔岐赫) 기념비(紀念碑) 278
- 4_ 염영철(廉榮鐵) 기념비(紀念碑) 282
- 5_ 이관우(李觀宇) 기념비(紀念碑) 286
- 6_ 이병규(李秉珪) 송덕기념비(頌德紀念碑) 290
- 7_ 정양시(鄭養時) 기념비(紀念碑) 295
- 8_ 김봉락(金鳳洛) 기념비(紀念碑) 299
- 9_ 도석재(都錫在) 기념비(紀念碑) 303
- 10_ 최돈황(崔燉璜) 기념비(紀念碑) 307

송덕비 |

- 1_ 원용균(元容均) 송덕비(頌德碑) 311
- 2_ 박병희(朴秉熙) 송덕비(頌德碑) 315
- 3_ 이봉연(李鳳淵) 송덕비(頌德碑) 319
- 4_ 정난기(鄭蘭基) 송덕비(頌德碑) 324

선정비 |

- 1_ 정우주(鄭宇柱) 선정비(善政碑) 333
- 2_ 홍순태(洪淳泰) 효자비(孝子碑) 337
- 3_ 광산 김씨(光山金氏) 정려비(旌閭碑) 341

- 4_ 치산치수비(治山治水碑) 348
- 5_ 문탄방살비(文灘防殺碑) 352
- 6_ 안흥리(安興里) 선정비(善政碑)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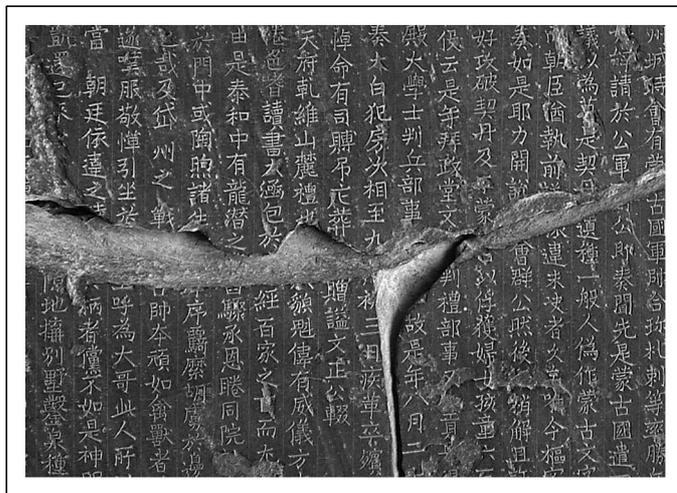
제5절 국난극복 기념비 · 357

- 1_ MP 오우덴 중령 현충비 359
- 2_ 충혼탑(忠魂塔) 362
- 3_ 3·1운동 기념비 365
- 4_ 충혼비(忠魂碑) 369
- 5_ 황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373
- 6_ 강림(講林) 의병총(義兵塚) 377
- 7_ 금대리(琴垞里) 의병총(義兵塚) 381
- 8_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385
- 9_ 최양옥(崔養玉) 공적비(功績碑) 388
- 10_ 한상열(韓相烈) 의사(義士) 추모비(追慕碑) 394

제6절 암혈 · 401

- 1_ 태종대(太宗臺) 403
- 2_ 구연(媼淵) 410
- 3_ 취석(醉石) 414

제1 절 지식



1_ 조충趙冲 지석誌石

문화재 지정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0호
 작成年代 고려시대
 所在地 횡성읍 정암3리 598번지
 規 模 가로 89cm, 세로 55cm, 두께 4cm
 材 質 청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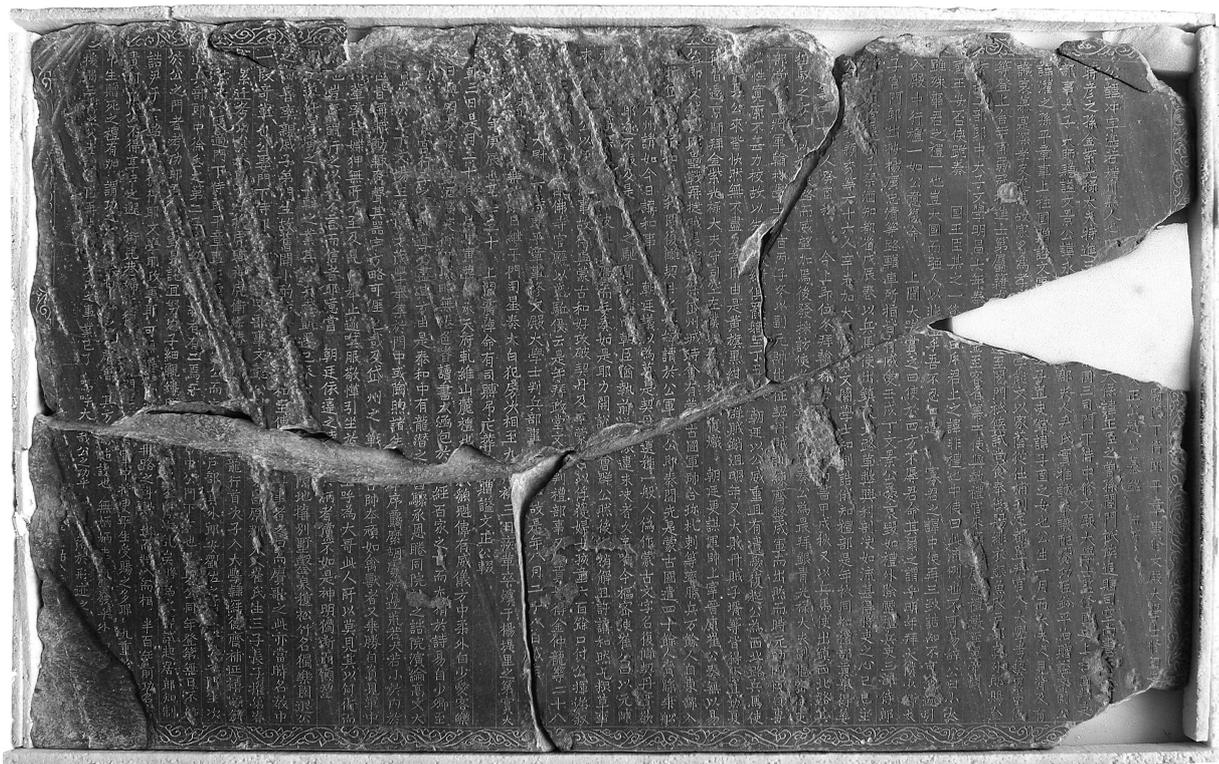


조충지석은 1989년 5월 1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조충의 묘소는 개성군 상도면 연동 건좌에 있는 고려 태조왕비의 제릉 서쪽 기슭에 있었던 것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실묘(失墓)되었다가 도굴이 성행하던 일제 강점기에 이 묘소도 수난을 당하여 지석만 지표에 남아 있던 것을 1926년에 발견하여 묘소를 찾게 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38선으로 남북이 갈리게 되자 횡성의 중중은 장차 통행이 단절될 것을 염려하여 1948년에 횡성군 우천면 정암리 망백 우측 기슭으로 묘소를 이장하고 지석도 옮겨묻었다가 1988년 10월에 묘역을 정비할 때에 지석이 드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정암 3리에 거주하는 후손 조성진 씨가 보관하고 있다.

청석으로 만들었는데, 가로 89cm, 세로 55cm, 두께 4cm다. 뒷면은 거칠게 다듬었고 앞면에만 글씨를 새겼다. 돌에 정교한 당초(唐草) 무늬를 새기고, 그 안쪽으로 테두리 선을 그었다. 다시 세로로 금을 그어 글씨를 새겨 넣고 붉은 칠을 하였다. 자경(字徑)은 1cm이며, 한 줄에 41자, 전체 50행이다. 현재는 네 조각으로 깨어져 있으며,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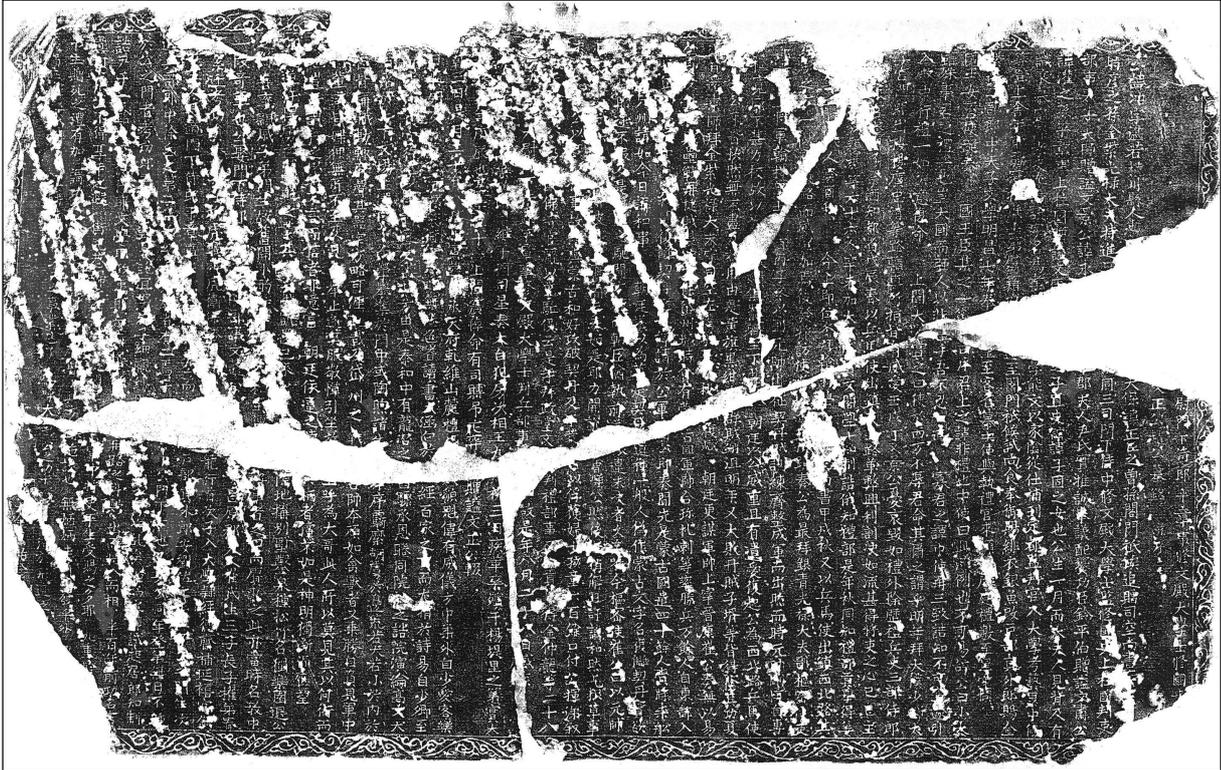
조충 지석



지석 부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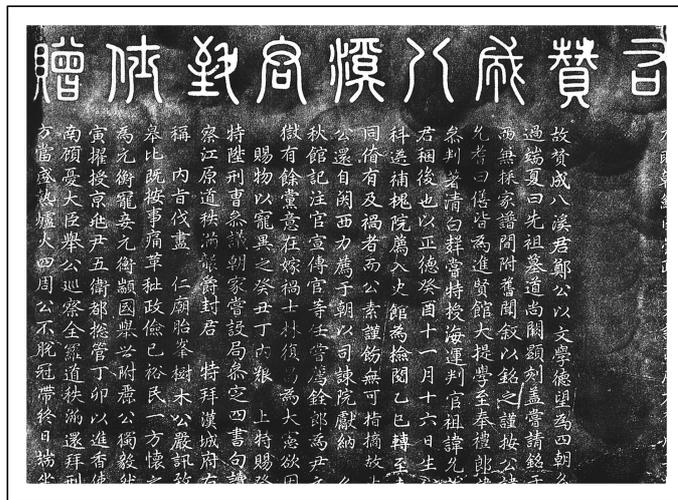


지석 부분 (2)



조충 지석 (탁본)

제2절 신도비



1_ 이반계 李攀桂 신도비 神道碑

建 立 年 代	1933년
作 成 年 代	고려시대
所 在 地	횡성읍 정암1리 산 46번지
撰 · 書 · 篆	李種翼·李炳允·李健培
規 模	총높이 : 207cm, 비높이 : 158cm, 폭 : 77cm, 두께 : 34.5cm
材 質	碑身 : 대리석, 臺石 : 화강암



이반계 신도비는 횡성군청에서 6번 국도를 따라 마산리를 지난 후 조곡정암 쪽으로 우회전하고 약 1km 직진 후 다시 생운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생운교를 지나면 정암1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암1리 버스정류장을 지나 바로 왼쪽에 보이는 마을로 약 100m 정도 들어가면 나온다.

1933년에 세워진 이 비는 비좌개석(碑座蓋石)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개석에서 문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석에도 문양은 없으나 갈라진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 비의 마멸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독은 가능하다. 비 좌측에는 1983년에 새로 세워진 귀부이수(龜趺螭首) 형태의 신도비가 있는데, 내용은 구비(舊碑)를 해석해 놓은 것이다. 제액(題額)에는 ‘高麗朝領中郎將禮部尙書慶原君神道碑銘’이라고 전서(篆書)로 썼으며 자경(字徑)은 9cm이고 음기(陰記)는 해서(楷書)로 썼는데 자경은 2.5cm다. 비문은 구한국(舊韓國) 승훈랑(承訓郎) 순릉(順陵) 참봉(參奉)을 지낸 이종익(李種翼)이 글을 짓고, 후손 이병윤(李炳允)이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후손 이건배(李健培)가 썼다.

신도비 위쪽의 묘소에는 묘비를 비롯하여 석물들을 최근 새로 조성해 놓았다. 상석과 향로석, 혼유석을 비롯해 문인석, 무인석, 촛대석 등이 있다. 한편 정경부인 창녕 조씨(昌寧曹氏)의 무덤은 건너마을인 정암2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반계 신도비 전경



이반계 신도비 (구비)



이반계 신도비 (신비)



이반계 묘소 전경



이반계 묘비



문인석(좌)과 무인석(우)



장명등



망주석

書 齋 原 齋 南 公 神

舊韓國承訕郎順陵參奉李種翼撰

十五世孫炳允書

十六世孫健培篆

癸酉五月日立

이반계 신도비 후면 (탁본)

禮 器 尚

後孫盧蓋夏堅其石請銘在余曰以宋學固不敏措辭於代遠無差之文字不亦快賢君子實記之吾歲且悲此
 歸凶國之伴也慕仰風節實方附驥尾之積不壞借之依其譜誦或而縑送如右銘曰
 夕城古闕松京世祚諸君迥辰際代之莫朝真掛冠杜同列席間功散流合殊其惠吉歸元隱我同誰車東登世
 西望古都使命徵珪樹相不肩 御駕臨門志 郝真 命飲無漸古為誰自苦曰磁子病奔懷難提晉陽之節七日
 辨一操義美 乃古綱倫曰男斤外是父是子國欲震遷玉成如彼墓碑消滅幾何理奉代已遠大駭元 稽嗟
 所為揚方一孤陋六學景仰深切故得波草曰讀文烈慶原爵孫古貴移 轉少里古杏手澤尚存稷潤之原片石
 言後孫裔誠慕遺蹟新寔後未者鑲考斯文

이반계 신도비 좌측면 (탁본)

循 碑 銘

江原道橫城 郡隔川 白正 菴里

山	香	四	六	七	四	五	八	田	正	菴	里
四	九	二	四	九	三	二	二	一	六	七	二
八	八	四	四	五	六	二	二	四	一	五	二
二	七	二	七	三	二	二	八	四	三	四	九
二	五	一	五	九	七	二	五	九	二	三	
二	五	八	三	九							

이반계 신도비 우측면 (탁본)

2_ 정종영 鄭宗榮 신도비 神道碑

建 立 年 代	1707년 (朝鮮 肅宗 33年)
所 在 地	공근면 공근리 산 18번지
撰 · 書 · 篆	李端夏·丁昌燾·鄭 鎰
規 模	총높이 : 238.5cm, 비높이 : 199.5cm, 폭 : 88.5cm, 두께 : 27.5cm
材 質	碑身 : 대리석, 臺石 : 화강암



정종영 신도비는 횡성에서 춘천 방향으로 가는 5번 국도를 따라가다 406번 지방도로로 우회전하여 공근리로 들어간 후 공명초등학교를 지나 오른쪽에 보이는 마을 안으로 300m 가량 들어가면 나온다.

숙종 33년에 세워진 이 비는 비좌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개석은 특별한 문양이 없이 단조로운 편이며, 대석에는 당초문(唐草紋)이 조각되어 있다.

제액(題額)에는 팔계군휘정종영신도비명(八溪君諱鄭宗榮神道碑銘)이라고 전서(篆書)로 썼으며 자경(字徑)은 8.0cm이고 음기(陰記)는 해서(楷書)로 썼으며 자경은 2.5cm다. 비문은 이단하(李端夏)가 글을 짓고, 외후손 정창도(丁昌燾)가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증손 정유(鄭鎰)가 썼다.

비는 가로 1칸, 세로 1칸의 정자각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보존이 양호한 편이지만, 하단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약간 마모가 심하다. 그러나 전체 글자의 판독은 가능하다.

정종영의 묘소는 신도비에서 약 100m 정도 올라가면 찾을 수 있다. 1988년에 새로 세워진 묘비와 식물들이 있다.



정종영 신도비 정자각



정종영 신도비 부분

誌靖園公配祀碑銘

家着宰大臣所舉也曾在先朝不媚於諂遠及當躬得益多其才究固非不令但承時人之矯激耳... 詩曰周流六部今成老瑞合田國還省愆公每欲退歸而敦府無他官管領為是遲面者六七年... 卒壽七十七 上震悼輟朝賜祭如令式官庀具十月二十三日禮堂子楊城縣北公里子坐原鄉士追慕配祀于松公書院公資性慷慨局度知教以嚴飭躬以禮法... 崇禎甲申歲六十四年丁亥 月日五代孫橫城縣監宇柱 立

정종영 신도비 전면 (탁본)

